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Based on the recognition of college students -

Sookja Lee*, Seong-Ok Kw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the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 decision self - efficac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as a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ack of self - clarification, lack of job information, and lack of recognition of need were subordinate factors of career barriers. Third, as a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 making self - 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goal setting and job information, which are sub - factors of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were analyzed. Fourth,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o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level of career barrier,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should be lowered and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should be increased.

▶ Key Words :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1. Introduction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5월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전체 실업률은 3.6%인데 비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4%로 청년실업은 개인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청년층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공식실업률보다 훨씬 높다. 한국사회의 높은 청년실업률은 취업을 준비하

고 있는 대학생들의 취업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취업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대학생들은 개개인의 취업역량을 쌓기 위하여 외국어와 컴퓨터 능력 습득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에 필요한 각종 스펙을 쌓아가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는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등으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1]. 이러한 이유로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First Author: Sookja Lee, Corresponding Author: Seong-Ok Kweon

*Sookja Lee (can00044@naver.com),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Seong-Ok Kweon (kso1255@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Songwon University

• Received: 2017. 08. 22, Revised: 2017. 09. 12, Accepted: 2017. 09. 16.

우리나라의 상당 수 대학생들은 학교서열 및 합격위주의 대학과 학과선택을 하는 경향이 많다. 이로인해 본인의 적성과 흥미 및 장래목표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정이 없었다. 이는 직업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진로에 대한 정체감이 불명확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 입학 과정에서 진로나 직업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지 못함으로 인해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불투명한 미래 전망, 진로불안으로 이어진다. 하여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군 입대나 휴학 등을 이유로 진로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2].

더불어 진로발달과 선택에 있어 부모의 과잉 기대와 이에 부응하고자 하는 태도로 인한 압력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진로발달과 선택의 문제에 개인의 능력과 흥미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3].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은 인지적 측면의 발달과 진로준비행동 같은 행동적 측면에 대한 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4]. 또한 대학생들의 현실적이고 합리적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진로결정이 최선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진로결정에 후속하여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이 수반되는가, 더 나아가 합리적인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는 것은 대학생 대상의 진로지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5].

진로준비행동은 지적능력, 흥미, 적성 및 성격 진로결정수준과 같은 인지나 태도 요인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그리고 진로결정 이후에도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포함한다[6]. 즉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자신의 적성과 흥미, 능력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말한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김주섭, 2017; 김민정, 2016; 오은주, 2014)[1][7][8], 대학생과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백사인, 2011; 김봉환, 2010; 김선중, 2005)[9][6][2],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박예영·이동형, 2014; 손은령·손진희, 2005; 김봉환·김계현, 1997)[10][11][12]가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되기보다는 특정변인들만을 선정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어, 진로문제의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진로문제는 개인의 내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인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각 개인의 다양한 진로요인들이 환경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시해 준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흥미보다도 경제적 안정성이 진로선택의 우선 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한 진로발달 현상을 이해하는데

좋은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3].

이에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로장벽(맥락적 변인)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인지적 변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Theoretical Background

1.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최근 진로상담 영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Bandura(1977)의 사회인지이론을 진로상담 영역에 적용하여 개인·인지적 요인과 외적·맥락적 요인의 상호영향을 포함하는 진로이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진로흥미의 형성과 발달과정 및 진로선택과 수행수준의 결정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사회인지이론으로부터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이 진로발달의 주체라는 것을 개념화 하였고, 이 중 자기효능감이 실제 행동 수행을 결정한다고 가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특정과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13]. 자기효능감은 개인·행동·환경요인과 상호작용 하는데 주로 개인의 수행성취도, 대리학습, 언어적 설득, 특정 영역에서의 정서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된다. 결과기대는 특정 과업을 수행했을 때 자신과 타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이다. 결과기대는 자기효능감과 함께 행동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목표는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설명한다. 즉 개인은 목표를 세움으로써 상당기간 외부의 보상없이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유지할 수 있다[13]는 것이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복잡하게 상호작용 하면서 개인의 진로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개인적 요인(자기효능감, 성향, 성, 건강상태 등)과 외적·맥락적 요인(사회적지지, 진로장벽 등)의 상호 영향을 강조[14]하며 <그림 1>과 같이 가정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이러한 기본가정을 바탕으로 진로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흥미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을 제시 하였다. 흥미모형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형성하고, 이로인해 특정분야에 흥미가 생기면 관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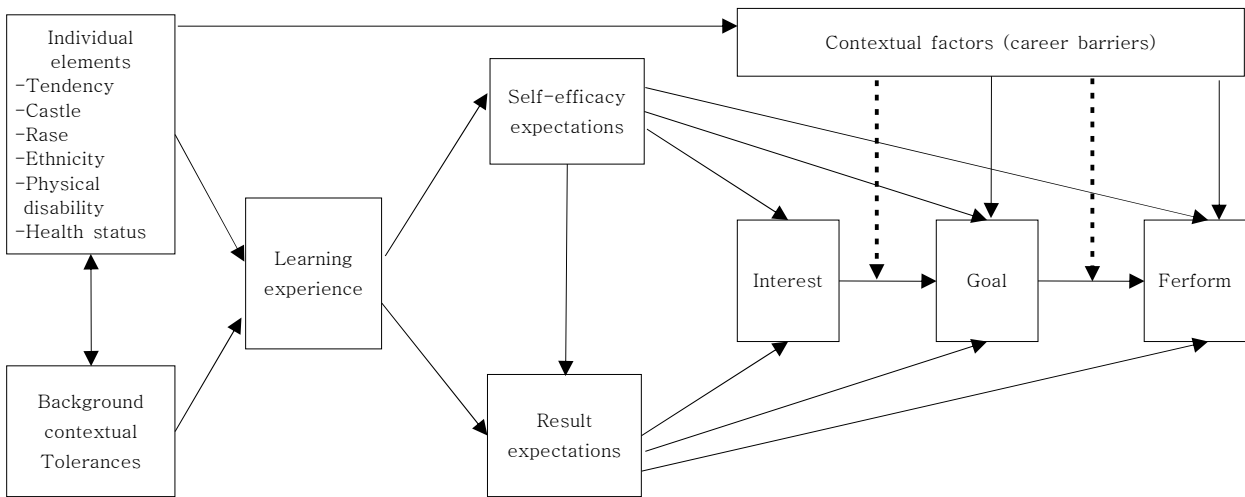


Fig. 1. The impact of individuals, the context, the experience factor for the career choice behavior(Lent, Brown. & Hackett, 1994)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수정된다고 설명한다. 즉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특정한 과제수행 상황에서 각 개인이 진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수행 후의 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흥미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선택모형은 개인의 흥미가 발달하게 되면 학업·진로를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적 행동을 취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목표선택의 과정에서는 직업에 대한 흥미가 있더라도 진로장벽이나 기회의 제한 등을 많이 인식하게 될 경우에는 흥미가 직업선택과 진로수행으로 연결되지 못 할 수도 있다. 수행모형에서는 개인의 수행성취수준은 능력,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즉 자기효능감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결과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더 야심찬 목표를 갖게 되고, 수행을 통한 성공 경험은 다시 능력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3].

이처럼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대한 과정과 진로선택행동을 사회인지적 요인과 개인적·맥락적 요인까지 포함하여 설명함으로써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

2. Career barrier

진로장벽이란 개인의 진로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말한다. crites(1969)[15]는 진로장벽을 진로발달 과정을 방해하는 위협적인 조건들로 정의하였다. 이를 자기개념이나 성취와 같은 심리적 측면의 내적장벽과, 직장과 임금에서의 차별과 같은 개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적 요인들인 외적장벽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인지이론에서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목표와 선택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요인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16].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개인의 학습경험

을 통해 발달되고, 개인은 경험을 통해 특정 활동이나 수행에 차별적인 강화를 받게 된다[8]. 이러한 강화를 통해 개인은 특정 영역에 대한 기술, 자기효능감,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발달시켜 나간다. 이때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개인의 흥미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는 진로목표와 활동의 선택, 선택한 진로에서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된다[14]

진로장벽을 변인으로 하여 연구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은주(2014)[8]는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김민정(2016)[7]은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장벽은 진로자기조절 수준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진로장벽의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고, 진로장벽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3.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관련 의사결정에서 주어진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 할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13]의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그는 자기효능감을 과제나 행동을 수행 시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특수한 목표나 인지된 장애를 극복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Bandura, 1977)[13]. Hackett와 Betz[17]는 개인적 효능감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 하여 처음으로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였다. 이들은 자기효능감이 인간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설명하고

예측할 때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 직업선택 등의 영역에서 성공을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변인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오은주, 2014; 김선중, 2005; 김봉환, 2010)[8][2][6] 등이 있다. 이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진로준비행동은 본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인지나 태도 측면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측면을 말한다.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6]

김봉환(1997)[6]은 진로준비행동을 자신 및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 목표달성 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천적 노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보수집활동은 자신에 대한 정보(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 능력, 등)와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직업현황, 입직방법, 필요요건, 전망,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필요한 도구구비활동은 자신이 설정한 직업에 입문하기 위한 준비과정 중에 필요한 장비나 교재 구입 및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작용으로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제 활동을 말한다[6].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 등이 있다(김선중, 2005; 김연중·손은령, 2012; 송영선·송현정, 2015)[2][18][19]

III. Research Design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으로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인식 부족, 외적

장애를 설정하였고,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목표설정, 직업정보수집,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를, 종속변수로 진로준비행동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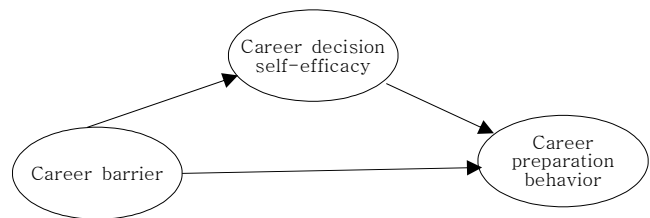


Fig. 2. Research Framework

2. Measuring the Variables

2.1. Career barrier

진로장벽의 측정도구는 탁진국과 이기학(2001)[20]이 개발한 직업결정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22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필요성인식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외적장애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789로 나타났다.

2.2.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Betz(1983)[21]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F를 이은경(2000)[22]이 타당화 시킨 것을 수정 보완하여 23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 등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854이다.

2.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봉환(1997)[5]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13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의 내용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이다. 이 연구에서 전체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843이다.

3. Data Collection and Analytical Method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의 대학생 2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법을 이용하고 편의표집을 하였다. 총 29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27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내용이 부실하거나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설문지 29부를 제외하고 총 24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a 계수를 측정하였다. 셋째,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넷째,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Analytical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Sample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 총 243명 중 남학생이 111명(45.7%), 여학생이 132명(54.3%)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많이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학년은 1학년 93명(38.3%), 2학년 95명(39.1%), 3학년 38명(15.6%), 4학년 17명(7.0%)로 1~2학년이 연구대상자의 약 77%를 차지하였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 130명(53.5%), 자연과학계열 55명(22.6%), 예체능계열 30명(12.3%), 공학계열 19명(7.8%), 보건계열 9명(3.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Category		N	%
gender	M	111	45.7
	F	132	54.3
Grade	1	93	38.3
	2	95	39.1
	3	38	15.6
	4	17	7.0
Major lin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30	53.5
	Natural Sciences	55	22.6
	Arts and Physical Education	30	12.3
	Engineering	19	7.8
	Health	9	3.7
Total		243	100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각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계수는 <표 2>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는 정적 상관관계($r=.494, p<.01$)를, 진로장벽과의 상관은 부적 상관($r=-.479, p<.01$)을 보였다.

Table 2. variables cross correlation

variables		1	2	3
1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1		
2	Career barrier	-.313**	1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494**	-.479**	1

**p<.01

3. Verification of research problem

3.1.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표 3>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인식 부족, 외적장애를 독립변수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의 진입과 탈락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검토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자기명확성 부족 $t=-3.091, p<.01$, 직업정보 부족 $t=-2.998, p<.01$, 필요성인식 부족 $t=-2.374, p<.05$ 로 나타나 유의하게 분석되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 필요성인식 부족은 유의수준 하에서 진로준비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장벽을 높이 인식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은 저하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단계적 선형회귀분석시 Durbin-Watson=1.830으로 2에 가까워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공차한계 값이 0.1이상으로 없는 것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F값이 28.271, $p=.000$ 으로 회귀모형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β	t-value	tolerance limi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ack of self-clarity	-.249	-3.091**	.580
	Lack of job information	-.214	-2.998**	.606
	Lack of awareness of necessity	-.154	-2.374*	.733
R=.512, R2=.262, F=28.271*** Durbin-Watson=1.830				

*p<.05. **p<.01, ***p<.001

3.2.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표 4>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목표설정, 직업정보 수집,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를 독립변수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의 진입과 탈락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검토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설정은 $t=5.305, p<.000$, 직업정보는 $t=3.063, p<.01$ 으로 나타나 유의미하게 분석되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설정과 직업정보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단계적 선형회귀분석시 Durbin-Watson=1.94로 2에 가까워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공차한계 값이 0.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으므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F값이 89.894 $p=.000$ 으로 회귀모형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β	t-value	tolerance limi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Goal Setting	.379	5.305***	.574
	Job information	.219	3.063**	.574
R = .547, R2 = .299, F =89.884***(Durbin-Watson=1.94				

* $p<.05$. ** $p<.01$, *** $p<.001$

3.3.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표 5>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23]가 개발한 검증방법인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표이다. 1단계는 독립변수인 진로장벽이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해야 한다. 2단계는 독립변수인 진로장벽이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해야 한다. 3단계는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다는 것을 전체로 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 투입하였을 경우에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거나, 2단계의 회귀계수 값보다 감소하면 매개변수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두 번째 회귀식에서 진로장벽의 영향력이 $\beta=-.479, p<.001$ 보다 세 번째 회귀식에서 진로장벽의 영향력이 $\beta=-.360, p<.001$ 줄어들었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 test step	β 값	t-value	R2
Step 1	-.313	-5.117***	.098
Step 2	-.479	-8.475***	.230
Step 3 Independent variable	-.360	-6.620***	.361
Step 4 parameter	.382	7.022***	

* $p<.05$. ** $p<.01$, *** $p<.001$

IV. Discussion and Conclusions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학생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부(-)의 상관관계($r=-.479, p<.01$)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정(+)의 상관관계($r=.494, p<.01$)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자기명확성 부족($t=-3.091, p<.01$)과 직업정보 부족($t=-2.998, p<.01$), 필요성인식 부족($t=-2.374, p<.05$)은 부적영향을 나타냈다. 즉 자기이해와 자신감이 부족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자기명확성 부족과 진로결정에서 필수사항인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진로선택에 대한 필요성인식 부족의 진로장벽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소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목표설정($t=5.305, p<.001$)과 직업정보($t=3.063, p<.01$)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목표설정과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 직업에 입직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직업정보 수준을 높여줄 때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촉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beta=-.360, p<.001$)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높을지라도 진로관련 의사결정에서 주어진 과제수행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줄 때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진로장벽(맥락적 요인)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장벽 수준을 낮게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으면 진로장벽 수준을 낮추어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개인의 인지과정을 통해 형성된 환경이 진로준비행동에는 더 중요할 수 있다[14]는 사회인지적진로이론의 주장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가 대학생들의 진로지도 현장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시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자기명확성 부족과 직업정보 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진로결정시 자기이해(자기명확성)와, 직무이해(직업정보)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영역임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24]. 자기명확성과 직업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 진로결정시, 취업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목표설정의 중요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신감인 목표설정을 높이기 위해 자기이해의 부분을 확장 시킬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대학에서는 진로지도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작성 방법과 면접위주의 기술적인 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인지적 측면인 자기이해 부분을 더 중요시 하여 지도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 능력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더불어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분석을 통한 직업정보수집을 하여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화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지역별, 대학특성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뢰도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편의표집으로 진행된 연구로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 선입관과 표본의 오차가 작용할 수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정확한 표본 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Ju-Seob, Kim. "The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career barrier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4, No. 2, pp. 141-166, 2017.
- [2] Kim Sunjung. "Effects of Career Barriers, Hop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ong Ik University PhD. thesis, 2005.
- [3] Kim, Young-Hye, Ahn, Hyun Nie. "The literature review on career development in Korean college students based on social-cognitive career perspective",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5 No. 4, pp.1-18, 2012.
- [4] Kim Eun-ju. "Development of career preparation type inventory for Korean college students", SeoulWomen's University Ph.D. thesis, 2008.
- [5] Park Yoon-a. "The Relationship among Perfectionism of College Students, their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6] Bong Whan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im Bong Hwan.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thesis, 1997.
- [7] Minjung Kim. "Effect of Career barrier on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elf-Regulation",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9, No. 2, pp. 89-107, 2016.
- [8] Eun Joo Oh.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Undergraduat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 4, pp. 31-58, 2017.
- [9] Baek Sal In. "The Effects of Perceived Employment Barrier of University Seniors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Media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career research, Vol. 1, No. 2, pp. 91-109, 2011.
- [10] Ye Young Park, Dong Hyung Lee. "The Role of Job-Search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Korea vocational education major, Vol. 33, No. 2, pp. 85-101. 2012.
- [11] Eun Young Son, Jin Hee Son,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 Psychotherapy, Vol. 17, No. 2, pp. 399-417, 2005.
- [12] Bong Whan Kim, Kay Hyon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9, No. 1, pp. 311-333, 1997.
- [13] Bandura A.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pp. 191-215, 1977.
- [14]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pp. 79-122, 1994.
- [15] Crites. J. O.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1969.

- [16] Younjung Gong. "Career barriers: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an application to the counseling practi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6, No. 3, pp. 1225-1244, 2005.
- [17] Hackett, G., & Betz, N. E. A self-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a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8, pp.326-339, 1981.
- [18] Kim Yeon-jung, Son Eunryung. "The Relation of Two Dimensional Typology in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with College Students Learning Behavio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5, pp. 2443-2461, 2012.
- [19] Song Young Sun, Song Hyun Jung, "The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attitude matur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research, Vol. 13, No. 3, pp. 21-42, 2015.
- [20] Jin Kook Tak, Ki-Hak Lee. "An Exploratory Study =The Development of Career Decision Scale", Digital Business Studies, Vol. 1, No. 1, pp. 167-180, 2001.
- [21] Taylor, K. M., & Betz, N. E.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pp. 63-81, 1983
- [22] Lee, Eunkyong,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Ehwa Women's University PhD, 2000.
- [23]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6), pp. 1173-1182, 1986.
- [24] Mi-Young Cho, "A Study on the Employment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using Internet Knowledge Search"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0, No. 12, 2015.

Authors



Sookja Lee received the M.S in social welfare from chosun university in 2014 and finished course Ph.D.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Chosun University in 2016. Sookja Lee is a professor of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at Songwon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the Old-aged employment, female employment, and college student career etc.



Seong-Ok Kweon received the Ph.D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from Chosun University in 2005. Seong-Ok Kweon is a professor of Dept of Social Welfare Songwo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Community Social Welfare, and Social Welfare Practice etc.